

I

경영환경

- 2022년 2/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함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 둔화세가 지속됨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2.9%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OECD 전체를 비롯하여 주요국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점 100을 하회하여 향후 경기 전망이 부정적임을 시사함
- 2022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 경기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2/4분기 민간소비와 수출 모두 2021년 4/4분기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설비 투자와 건설투자는 1/4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됨
 -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 2.4%로 하향 조정함
- 한국은행은 외환부문 리스크가 증대되고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에서 3.00%로 인상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 증가와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가 가속화되고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글로벌 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9월 국고채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8월 말 대비 86.6bp, 62.0bp 상승하였으며, 단기물 중심의 상승세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됨
- 2022년 2/4분기 가계부문 금융상품거래에서 현금 및 예금, 국외 주식 및 투자펀드 거래금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국내 주식 거래금액은 1/4분기 대비 증가함
 - 2022년 2/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5.9%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직전 4개년 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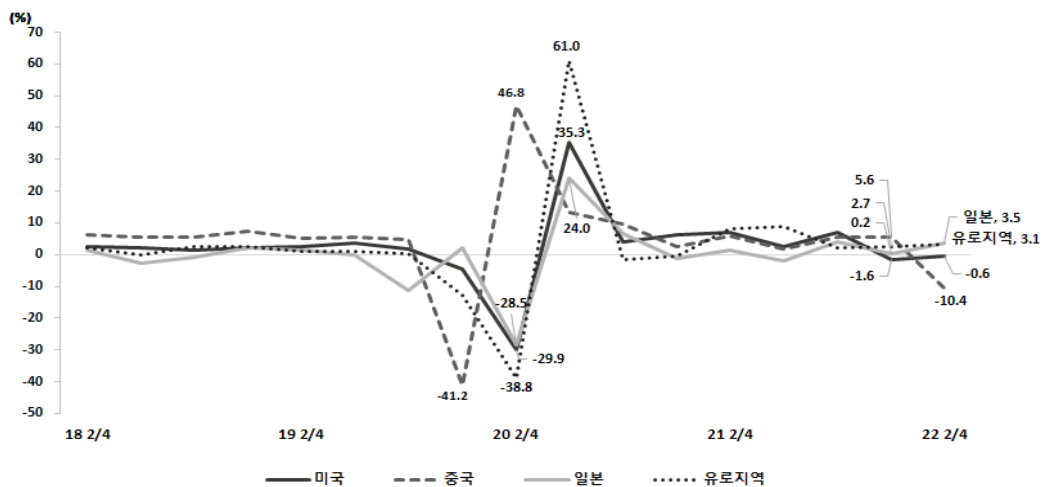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2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일본과 유로지역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함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 둔화세가 지속됨¹⁾

- 2022년 2/4분기 미국 경제는 민간 재고투자, 고정투자, 정부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0.6% 축소되며, 전분기(-1.6%)에 이어 연속 2분기 역성장함²⁾
- 2022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제로코로나 방침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0.4%를 기록함³⁾
- 일본 경제는 2022년 2/4분기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견조한 성장으로 1/4분기 대비 3.5% 확대됨⁴⁾
- 유로지역은 2/4분기 가계소비, 정부지출, 고정자본형성 등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⁵⁾ 전분기 대비 3.1% 성장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2. 9); 중국 국가통계국(2022. 7); 일본 내각부(2022. 9); Eurostat(2022. 10)

1) OECD(2022. 8), "GDP Growth - Second quarter of 2022"

2)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2. 9),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Estimate), GDP by Industry, and Corporate Profits (Revised), 2nd Quarter 2022 and Annual Update"

3) CNBC(2022. 7), "China's GDP growth misses expectations in the second qua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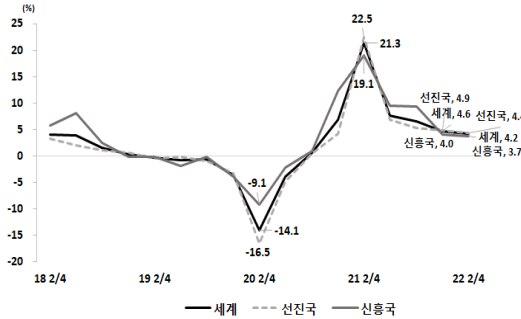
4)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2022. 9), "Quarterly Estimates of GDP for Apr.-Jun. 2022 (The Second preliminary Estimates)"; Reuters(2022. 9), "Japan's Q2 GDP revised up to 3.5% annualised expansion"

5) Eurostat(2022. 9),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2"

○ 2022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2.9% 증가하였으나, 2021년 2/4분기 이후 나타난 증가폭 감소세가 지속됨

-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 증가율은 각각 4.4%, 3.7%였으며,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고,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1%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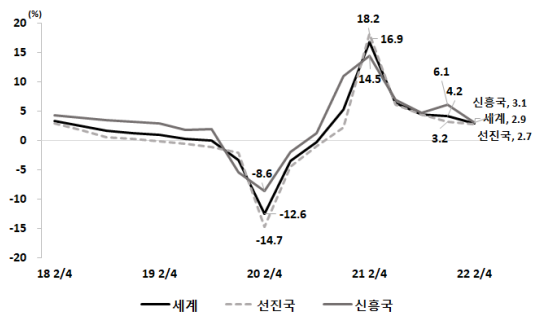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22. 9)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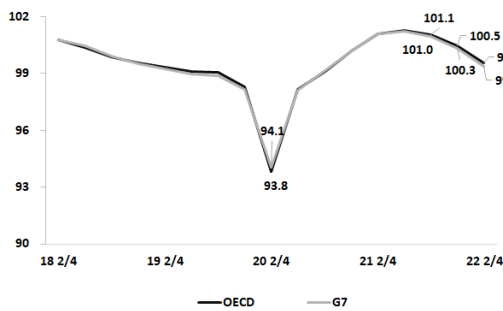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22. 9)

○ 2022년 2/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는⁶⁾ 99.6으로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하였고, 주요국 대부분의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점인 100을 하회하여 향후 경기 전망이 부정적임을 시사함

- G7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하였고, 미국, 유로지역, 중국 또한 전분기 대비 각각 0.9p, 1.0p, 0.3p 하락한 99.4, 99.6, 98.9를 기록하며 3개국 모두 기준점 100을 하회하였으며, 일본은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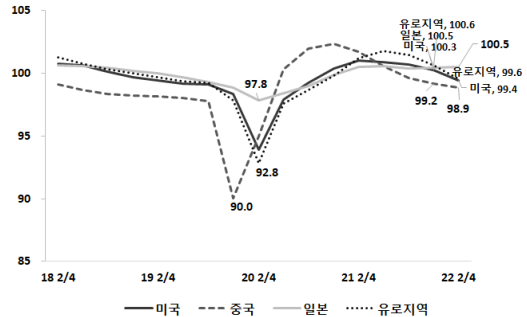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OECD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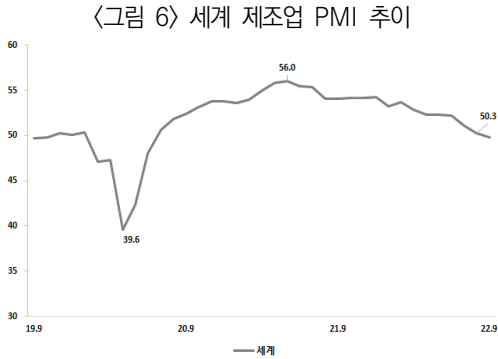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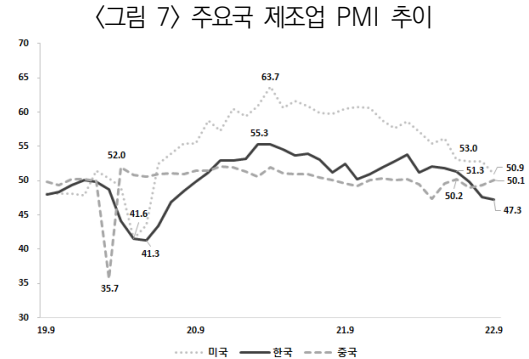
6) 경기흐름을 가능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021년 하반기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022년 9월 49.8을 기록하며 50선을 하회함

- 2022년 9월 미국, 한국,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6월 대비 각각 2.1p, 4.0p, 0.1p 낮은 50.9, 47.3, 50.1로 모두 하락추세를 보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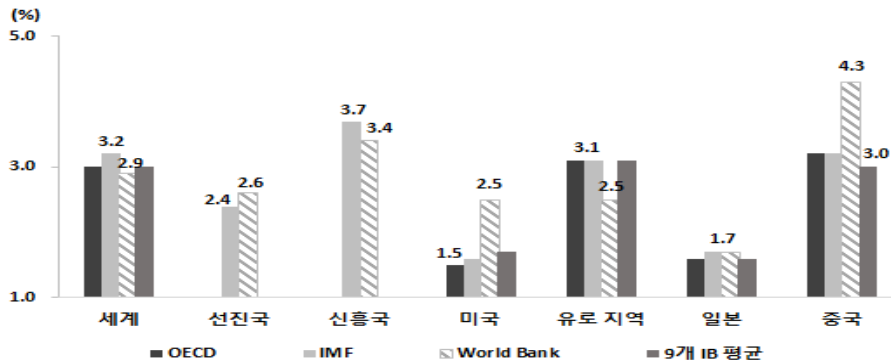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2~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IMF는 2022년 10월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고물가, 주요국 재정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하였고,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낮게 제시함⁸⁾

〈그림 8〉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주: 9개 IB는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임
 자료: IMF(2022. 10); OECD(2022. 9); World Bank(2022. 6); 9개 IB 평균(202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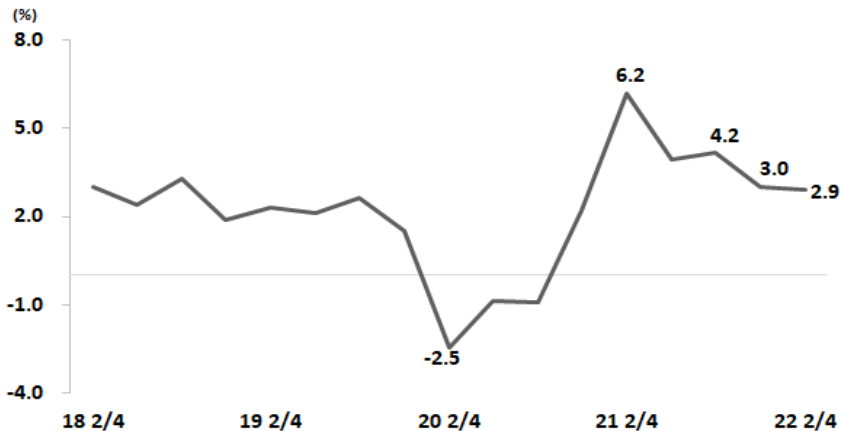
7)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8) IMF(2022. 10), "Countering the cost-of-living crisis"

나. 국내경제

- 2022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으나, 전분기보다 성장이 소폭 둔화됨
 - 2022년 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 4/4분기 이후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음
 - 2/4분기 소매판매 하락폭이 급격하게 커지며 소매판매 증가율이 감소세(-0.2%)로 전환됨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4/4분기 이후 연속 2분기 하락하여 2022년 2/4분기 100.9를 기록함
 - 2022년 2/4분기 지식생산물투자는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1/4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됨⁹⁾
 -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 확대된 반면, 설비투자는 4월 특수산업용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6.6% 축소되었고, 건설투자 증가율은 -3.6%를 기록함
 - 2022년 2/4분기 기계수주는 2.4% 증가에 그쳤고, 건설수주 증가율은 22.3%로 큰 폭 증가함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였으나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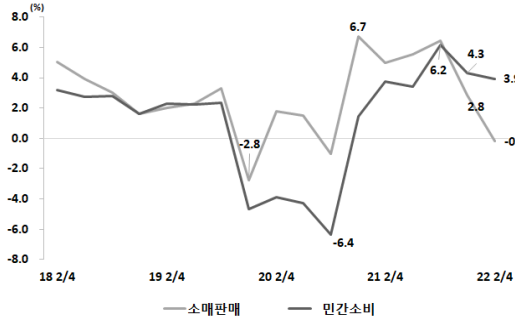
〈그림 9〉 국내 경제성장률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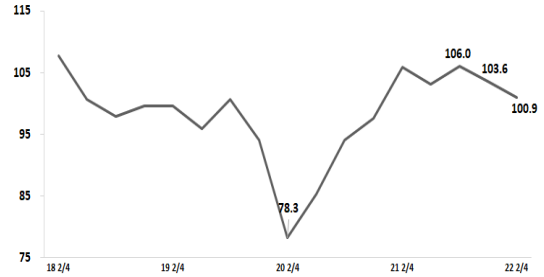
9) 통계청 보도자료(2022. 5),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2. 6),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2. 7),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0〉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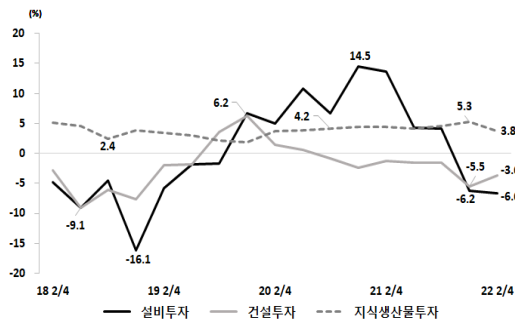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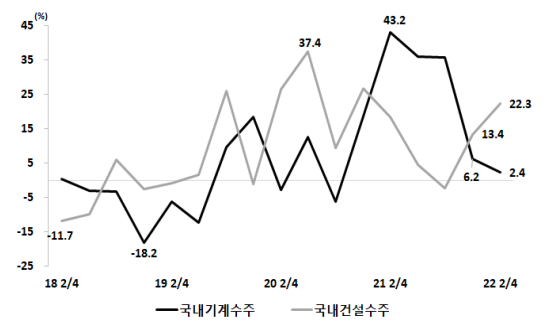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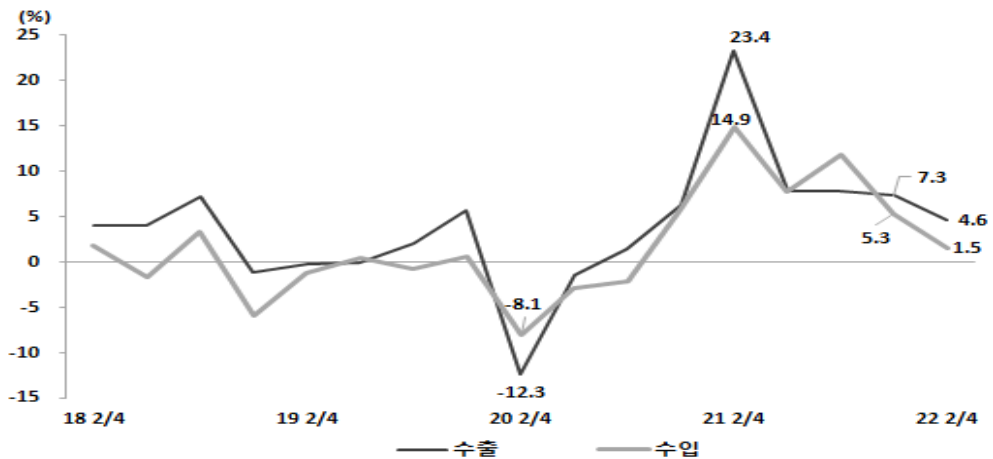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3〉 기계수주, 건설수주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그림 14〉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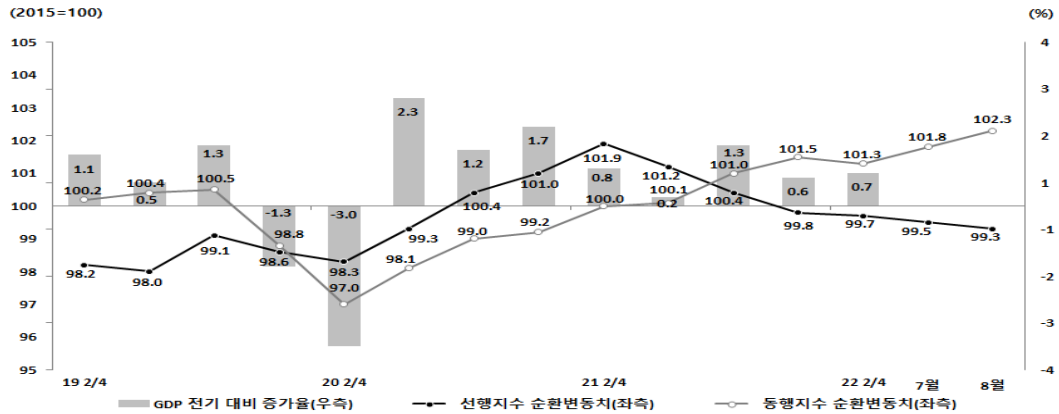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2/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99.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한 101.3을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2년 1/4분기부터 8월까지 기준점 100을 하회하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2년 8월 102.3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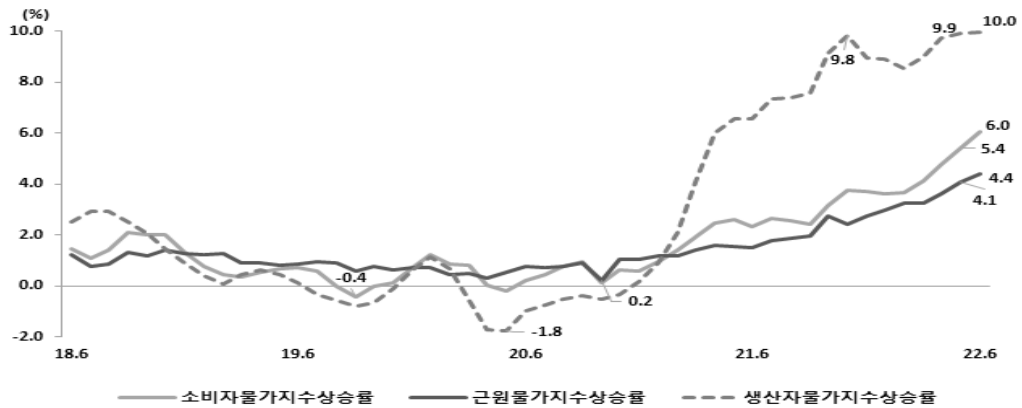
〈그림 15〉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2년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재료비 상승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 상승압력에 따른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1998년 이후 최대 상승률인 6.0%를 기록함¹⁰⁾

〈그림 16〉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지수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10) 기획재정부(2022. 5; 2022. 6; 2022. 7), 「최근경제동향」

○ 국내외 주요 기관은 국내 민간소비의 완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 약화 흐름을 고려하여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각각 0.1%p, 0.3%p 낮은 2.6%, 2.1%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은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1.7%(Nomura)에서 최고 2.7%(JP Morgan), 평균 2.4%로 전망함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¹⁾		2023(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0.7	4.1	2.6	2.8	2.1	2.3
민간소비	-4.8	3.7	4.0	3.7	2.6	3.9
설비투자	7.2	9.0	-3.8	-4.0	0.9	2.4
건설투자	1.5	-1.6	-1.5	-1.3	2.2	2.3
지식생산물투자	3.4	4.4	4.0	4.6	3.5	3.4
상품수출	-0.2	10.5	3.2	4.3	1.6	2.5
상품수입	0.3	12.8	2.9	4.2	2.1	2.8
실업률	4.0	3.7	3.1	3.1	3.5	3.3
소비자물가	0.5	2.5	5.2	4.2	3.7	2.2
경상수지	759	883	370	516	340	602
상품수지	806	762	305	442	460	65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47	121	65	74	-120	-48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2. 8),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2. 5), 『KDI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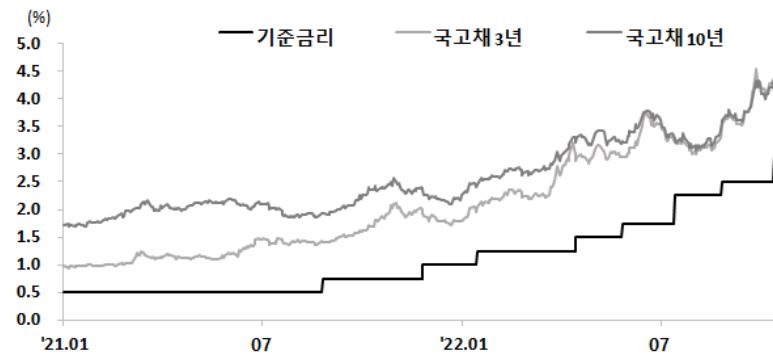
11)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2년 9월 말 기준임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으로 외환부문 리스크가 증대되고 물가 수준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에서 3.00%로 0.75%p 인상함¹²⁾
 - 금융통화위원회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 증가와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 수준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가 가속화되고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글로벌 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중심의 큰 폭 상승세를 보임
 - 9월 국고채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8월 말 대비 86.6bp, 62.0bp 상승함

〈그림 17〉 기준금리, 장단기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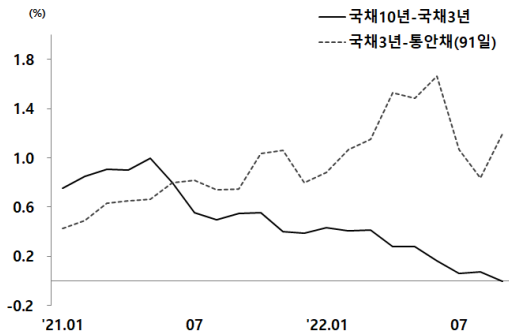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미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전망 상향 조정 및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강화 우려로 단기물 금리가 급등하여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됨
 - 미 연준은 높은 물가수준 고착화 우려로 최종 기준금리 전망을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이 예상되어 단기물 금리가 급등하여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9월에 역전됨
 - 8월 말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3.3bp까지 축소되었고, 9월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됨(9월 22일 기준, 3년물 4.11%, 10년물 4.01%)

12)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5, 2022. 7), “통화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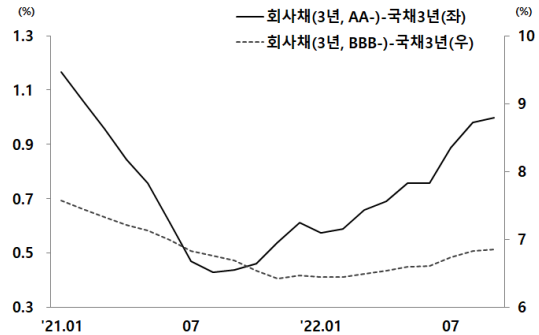
- 신용스프레드(회사채AA-, 국고채 3년물)는 금리 변동성 확대, 한국전력공사 채권발행 확대에 따른 신용채권 간 구축효과 등의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위축되어¹³⁾ 7월 88.8bp에서 9월 99.7bp로 확대됨
 -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78bp)를 상회하는 수준임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기초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미국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Fed)의 통화 긴축 기초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미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3.25%로 3회 연속 자인언트스텝(75bp)을 단행하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로 안정화될 때까지 금리 인상 기초를 이어나갈 예정임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8.5%, 8월 8.3%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미국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 긴축 기초 강화와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2년물)는 8월 말 -30.0bp에서 10월 중 -48.1bp로 금리 역전 기초가 심화됨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4/4분기 한국의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모두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함
 - 2022년 4/4분기 한국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각각 3.53%, 3.60%로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0.16%p, 0.18%p 상향 조정되었고,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3.85%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0.55%p 상향 조정됨

13) 한국은행(2022. 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3년) 금리		
'22. 4Q	'23. 1Q	2Q	'22. 4Q	'23. 1Q	2Q	'22. 4Q	'23. 1Q	2Q
3.85	3.84	3.72	3.60	3.56	3.45	3.53	3.50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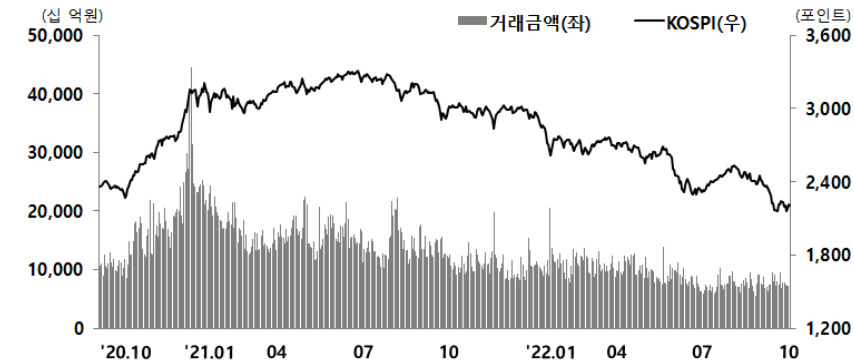
주: 2022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중순 기준임
 자료: Bloomberg

나. 주가 및 환율

○ 코스피(KOSPI) 지수는 주요국 통화 긴축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 코스피 지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국내 무역적자 지속, 외국인의 순매수 약화,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7월 말 2,452포인트에서 9월 말 2,155포인트까지 하락함
 - 9월 중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2.1조 원임

〈그림 2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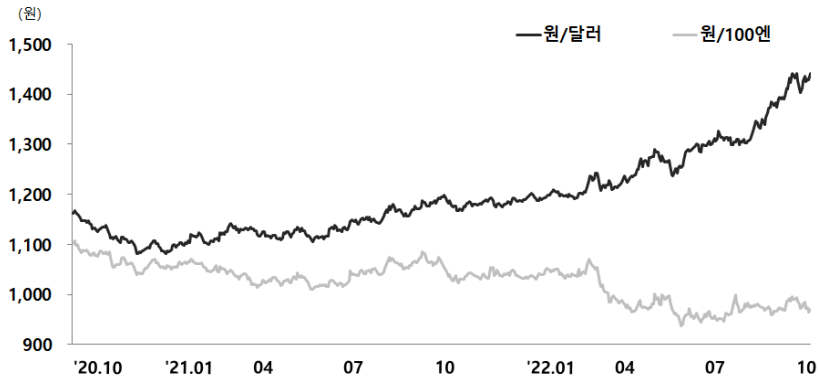
○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유로지역의 정치 및 에너지 리스크 확대, 국내 수출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임

- 8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유로지역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국내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7월 -50.9억 달러, 8월 -93.9억 달러) 등으로 전월 말 대비 48원 상승한 1,347원으로 마침
- 이후 미 연준의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 단행과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하며 초강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은 7월 말 1,299원에서 10월 중 1,440원까지 상승함

○ 원/엔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미국과의 장기 금리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함

-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24년 만에 엔화 유동성 회수를 위한 달러 매도로 100엔당 원/엔 환율이 991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엔화 약세의 주요 원인인 미·일 간 금리 차이를 축소하지 못해 다시 하락세를 보임
 - 100엔당 원/엔 환율은 7월 말 978원에서 10월 중 965원으로 하락함

〈그림 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4/4분기 원/달러와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하거나 유사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강력한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 확대,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2. 3Q	4Q	'22. 3Q	4Q	'22. 3Q	4Q
Standard Chartered	1,432	1,320	145	132	0.98	0.97
Wells Fargo		1,475		147		0.94
Morgan Stanley		1,480		150		0.93
JPMorgan Chase		1,380		147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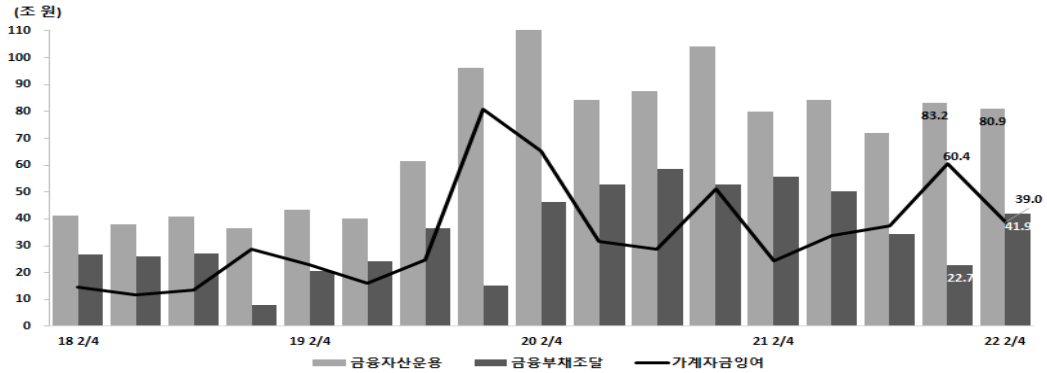
주: 2022년 3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중순 기준임

자료: Bloomberg

3. 자금흐름

- 2022년 2/4분기 가계부문¹⁴⁾ 자금잉여¹⁵⁾는 39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21.4조 원 감소함
 - 금융자산운용은 전기 대비 2.3조 원 감소하여 80.9조 원을 기록한 반면, 금융부채조달은 41.9조 원으로 전기 대비 19.2조 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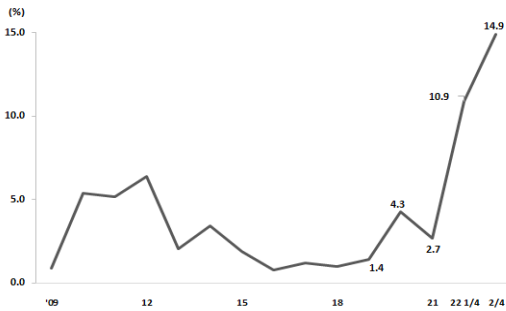
〈그림 22〉 가계자금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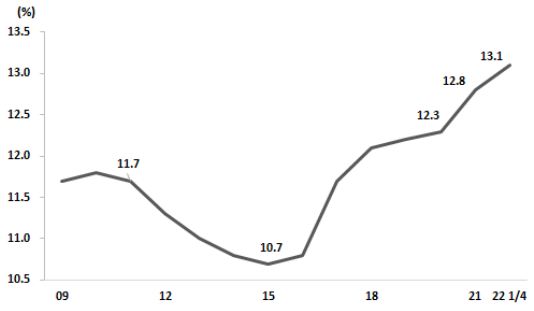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2/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4.9% 확대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 2022년 1/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역대 최대 수준인 13.1%를 기록함

〈그림 23〉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그림 2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2020년 이후 증가율은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발표된 수치임

자료: BIS

자료: 통계청

14)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5)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 2022년 2/4분기 가계부문 금융상품거래에서 현금 및 예금, 국외 주식 거래금액, 투자펀드 거래금액은 2022년 1/4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국내 주식 거래금액은 전분기 대비 증가함
 - 2022년 2/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5.9%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직전 4개년도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

〈표 4〉 가계 금융상품 거래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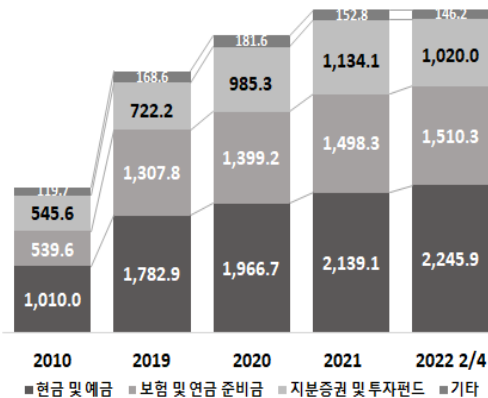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18	75.3	60.7	(37.8)	0.0	21.8	1.7	0.0	160.7
2019	130.7	72.0	(39.6)	-17.3	-7.9	2.1	2.0	181.6
2020	188.3	71.1	(18.7)	8.4	75.3	20.6	-6.6	379.3
2021	173.7	70.2	(20.6)	-29.7	90.1	22.8	5.8	340.3
2022 1/4	63.5	11.9	(14.3)	-10.6	7.7	8.3	1.8	83.2
2022 2/4	42.7	12.8	(15.9)	0.5	19.0	5.8	-0.1	80.9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2/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은 30.7%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1년보다 0.3%p 확대됨
 - 2022년 2/4분기 가계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비중은 45.6%로 2021년보다 2.2%p 증가한 반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은 20.7%로 2021년보다 2.3%p 감소함

〈그림 25〉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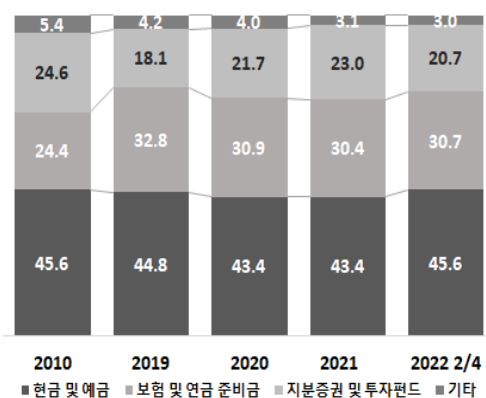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4. 규제·제도

-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2022. 9. 29 금융감독원)**
 - 최근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함
 - 새로운 유형의 차량별 특성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현행 FAQ 및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함
 - 일례로 현재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선정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전기차 모터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함

-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과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2022. 9. 14 금융위원회)**
 - 입원적정성 심사는 수사기관(경찰청)이 의뢰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심사처리 지연 및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 사용 논란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 또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2022. 9. 5 금융감독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거나, 중복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복가입된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① 실손보험이 중복가입된 경우 종업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환급되는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②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실손보험 재가입 시 현행은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 가입 가능했으나,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 IFRS17 도입 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준비금 등 적립방안 마련(2022. 7. 20 금융위원회)

-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 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함
- 우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신설하여 감독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함
-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부채 내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 도입 후에는 보증 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아 시가평가 시 보증 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하여 기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감독방안은 2022년 2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2022. 7. 20 금융위원회)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였으며, 현재 1억 원 한도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기존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을 허용하며, 주택임대·매매사업자 기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함